



4th Week, Novem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17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심사, 예산결산, 삭감, 마을, 차고지증명제
경제·관광	우수, 여행, 평가, 겨울, 수상
지역·사회	차량, 도로, 구조, 바다, 청년

※ 분석 기간 : 11월 21일~11월 27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심사	- 마을기업 심사와 재지정 문제 - 공덕비 심사 과정 - 청백봉사상 심사
	예산결산	- 마을기업 예산 감축 - 서귀포시 겨울 재난 예산 - 예산 삭감과 교통 개선
	삭감	- 마을기업 예산 삭감 문제 - 서민 부담과 정책 삭감 - 재난 대비 예산 삭감
	마을	- 마을기업 육성 지원 -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 제설과 주민 안전
	차고지 증명제	- 정책 찬반 논란 - 차고지확보와 예외 규정 - 제도 실효성 문제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우수 제품 홍보 - 가축분뇨 품질평가 대상 - 제주관광대상 수상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겨울여행 콘텐츠 - 제주-해외 직항 여행 활성화 - 여행사 디지털화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자원사업 평가 우수상 - 제주항공 환경경영 평가 - 관광 기념품 공모전 평가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겨울 관광 활성화 - 겨울 축제와 비엔날레 - 겨울 먹거리 탐방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경진대회 장려상 - 관광대상 수상 사례 - 국제 브랜드 수상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 강화 - 차고지증명제와 서민 부담 - 친환경 차량 지원 확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 - 도로 안전 관리 강화 - 도로 교통 체계 디지털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 논의 - 도시 재생 구조 개선 - 공공 안전 구조 점검
	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경계 분쟁과 대응 - 청정 바다와 관광 활성화 - 해양 자원 보존과 관리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 문화 복지 개선 - 청년 정책 참여 확대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 문화관광부가 수학여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9개 조항 발표,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등 중점 정책 제시, 청소년 대상 공익성 수학여행 활동의 확대 등 추진 예정
- ✓ 중국 상무부가 외자기업 안정과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신동력 육성, 기업 서비스 보장 등 3개 분야 9개 조항의 정책을 발표하여 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 계획
- ✓ 중국일보망이 텐센트 클라우드 문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용 여행 안내서 “China Travel Guide” 출시, 가이드는 입국절차, 전자결제, 호텔예약, 교통수단, 주요 관광지 등 실용적 정보로 구성
- ✓ 2024 국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운송, 산업응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험 플랫폼 관련 내용 발표
- ✓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36개 분야 119개 구체적 개혁 조치를 발표, 고용, 사회보장,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 향후 5년간의 인사사회보장 체계 개혁 청사진 제시
- ✓ 중국 최초의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법이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에너지 산업의 법치 기반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 녹색저탄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 2024년 세계인터넷대회 청서가 발표, 청서에서 중국의 정보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 디지털 경제 정책 체계화, 네트워크 공간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내용 포함
- ✓ 중국-아세안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 건설로 디지털 성과 공유, 국경간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 국제통신 업무, 무역금융 상호연계 등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강화

- ✓ 헤이룽장성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28개 구체 조치를 발표하여 민영기업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와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 추진
- ✓ 중국 상무부가 금융 지원 강화, 대외무역 신동력 육성, 기업 서비스 보장 등 9개 조치를 발표하여 공업 분야 대외무역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녹색저탄소 산업 발전 강화 예정
- ✓ 중국 정부가 식량절약과 식품낭비 방지를 위한 행동방안 발표, 2027년까지 식량 손실과 식품 낭비 통계조사 제도 개선 및 식당업계의 반낭비 행동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베트남 내 벤처기업 규모가 130억 달러를 돌파하고 700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추진
- ✓ 말레이시아가 2023년 약 74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치 기록, 2024년 중반까지 추가로 36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통한 아세안 핵심 경제국 위상 강화
- ✓ 말레이시아의 10월 대중국 원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여 중국의 두 번째 원유 공급국 지위를 회복하고 하루 150만 배럴의 수출 실적 달성

○ **필리핀**

- ✓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테라 솔라 프로젝트 착공식을 주도하여 3,500MW 규모의 청정에너지 생산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작, 이는 연간 430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예상
- ✓ 필리핀 경제구역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860억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하고 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2023년 전체 기록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성과 달성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33%로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2%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7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 ✓ 인도네시아가 10년 만에 세 번째 조세사면제도 도입을 검토 미신고 자산 공개 시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와 GDP 대비 세율 18%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형스위 키트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 사례 논의,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계획 협의

○ ASEAN

- ✓ 페트로나스, 페르타미나 등 동남아시아 주요 에너지 관계자들이 2025년까지 메탄 배출 기준선 수립과 2030년까지 정량화 가능한 집단 메탄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약속

○ 태국

- ✓ 태국 정부가 경제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준비, 2024년 2.7%, 2025년 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현금 지원과 토지 장기 임대 규정 완화 검토

○ 일본

- ✓ 교토시가 2025년도 내 숙박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현행 세 수 52억엔 대비 2배 이상의 인상폭을 검토하며 교통 인프라 정비 등을 위한 재원 마련 추진
- ✓ 일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사카에서 지도자회의 개최,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증진과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실현 등 공동과제 해결 논의
- ✓ 쓰쿠바시가 공유자전거 '쓰쿠차리' 대수를 58대에서 100대로 증강하고 대여소를 50개소로 확충,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대중교통 감편에 대응하는 이동수단 확대 추진
- ✓ 반노쥬 컴비나트가 2030년까지 외부 수소 도입을 통한 기업 연료 전환, 2050년에는 연간 43만 톤 규모의 수소 제조와 외부 공급을 목표로 수소 공급기지화 추진
- ✓ 이와테현 기업국이 발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전량 현내 소비 체제로 전환, 현내 2개 기업과 특정도매공급 협정을 체결하여 연간 8만 메가와트시의 공급량 확보
- ✓ 도쿄 23개 구의 70%가 방일 외국인 대상 피난 대책을 미수립, 모든 구의 웹사이트가 다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다언어 관광안내소가 보유 구가 6개, 다언어 콜센터 보유 구는 2개만으로 나타나 재해 대비 미흡 지적
- ✓ KDDI가 치치부시에서 5kg 정도의 화물을 10km 거리까지 운송하는 드론 배송 실증실험을 시작, CO2 배출량 60% 감축과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3년간의 실험을 추진 계획
- ✓ 오사카대학 연구팀이 기존 대비 8배의 강도와 20배의 분해속도를 달성한 생분해성 폴리머 소재를 개발, 의류 섬유 재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친화적 소재 실현

- ✓ 치바현이 호텔 등 숙박객 대상 숙박세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 수학여행생 과세 면제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촌과의 조정을 통한 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
- ✓ 가나가와현 미우라시가 '가나가와판 라이드셰어'를 12월 17일부터 본격 실시, 야간 택시 부족 보완을 위해 시가 운영 주체가 되어 연간 120만 엔의 적자를 부담하는 운영 체계 구축
- ✓ 아이치현이 나는 자동차 유람비행 후보지로 나고야성, 나고야항, 아이·지구박 기념공원 등 3곳을 선정하고 2026년도 경 유람비행 초기 모델 실현을 목표로 관광 진흥 추진
- ✓ 오키나와현이 2026년도부터 숙박세를 1인 1박당 2%의 정률제로 도입하고 현과 시정촌이 80억엔 규모의 관광진흥 재원을 확보하여 관광의 질적 전환 추진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백봉사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덕비 심사 절차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내용 반영 <p>- 청백봉사상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봉사활동을 평가해 공적을 인정, 수상자 결정.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선정 ·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청백봉사상 심사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예산결산	<p>- 마을기업 예산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삭감되며, 재지정 지원도 중단. 사업 지속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 필요 · 재정 문제로 마을기업 발전 제한. 현장 의견과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p>- 서귀포시 겨울 재난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 대비 장비 배치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 예산 집중. 시민 안전 위한 재난 대비 중요성 부각 · 제설 장비 확보와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배분 강화.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지속적 관심 필요 <p>- 예산 삭감과 교통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증명제 관련 예산 부족 문제 지속 발생. 대중교통 활성화와 예산 증액 요구 · 공영주차장 확대 및 차고지 예외 규정 완화 등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 검토 필요
	삭감	<p>- 마을기업 예산 삭감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의 지원 중단으로 신규 및 재지정 마을기업이 혼란에 직면. 지역 기업 생존을 위한 대책 필요 · 예산 삭감에도 마을기업 유지 위한 방안 마련 요구. 현장 지원 확대와 자립 방안 검토 필요 <p>- 서민 부담과 정책 삭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증명제와 관련된 재정 삭감이 주민 불만 증폭.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성 제기 ·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 예외 규정 및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서민 부담 완화 방안 논의 <p>- 재난 대비 예산 삭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예산 축소 우려. 시민 안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요구 · 도로제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활용 필요. 대책 수립 및 신속 대응 체계 강조
	마을	<p>- 마을기업 육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마을기업 지정 재개. 재지정 마을기업 예산 지원 중단 예정으로 지역사회 지원책 필요 · 지역 주민 주도로 개발된 마을 여행 프로그램 상용화 준비. 추가 자원 발굴과 상품화 진행 중

정치·행정	차고지 증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발적 참여로 마을 환경 개선.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노인 주도 환경 활동이 지역사회 귀감으로 평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더 큰 효과 기대 - 제설과 주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제설반 조직 및 제설 장비 활용으로 주민 안전 도모. 겨울철 대비 주민 협력 강화 ·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 재난 대비 체계적 운영 및 주민 편의 증대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찬반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유지와 폐지 논쟁 지속 · 정책 개선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논의 - 차고지 확보와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의 차고지 부족 문제와 규정 완화 요구 대두. 주민 불편 해소 위한 대안 제시 필요 · 차고지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제도 완화 방향성 검토 - 제도 실효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차량 증가와 서민 부담으로 제도 효과 논란 지속.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검토 · 도민 불편 해소와 정책 유지를 위한 용역 진행.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청회 예정

○ 178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우수, 여행, 평가, 겨울, 수상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우수 제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가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우수 식품기업과 겨울여행 콘텐츠 홍보를 진행함. 제주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겨울여행 럭키 드로우와 제주기업 상품 홍보 이벤트 개최. 도내 기관 간 협력으로 관광과 산업 연계를 강화 - 가족분뇨 품질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양돈농협이 2024년 가족분뇨 품질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 친환경 축산을 위한 우수 퇴액비 생산 성과 인정 · 자원순환농업 장려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환경보호 및 농가 신뢰 확보 - 제주관광대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제주관광대상'에서 우수 관광업체와 개인들이 선정됨.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평가 · 유공 인사와 업체들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협업 가능성을 확대.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도모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겨울여행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설경과 겨울 체험 활동 홍보. 눈꽃버스와 자연경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체험형 관광 상품 출시. 겨울방학과 연계한 가족형 체험도 마련 - 제주-해외 직항 여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와 해외 주요 도시간 직항 항공 노선 확대.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 강화 · 호치민과 대만 등 신규 노선 개설. 제주 인바운드 여행업 성장 기반 조성 - 여행사 디지털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진행. 제주 관광의 효율성과 접근성 개선. · 젊은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 교육 확대. 관광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촉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자원사업 평가 우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활용 사례로 우수상 수상. 지역 농업 자원과 소득 증대 성과 인정 · 탄소중립 실현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 노력. 지역 농산물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 제주항공 환경경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공, ESG 경영과 친환경 활동으로 베스트 브랜드상 수상.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 국제 표준 인증과 환경 투자 확대. 저비용 항공사로서의 혁신적 행보. - 관광 기념품 공모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협회, 제주 관광 기념품 경쟁력 강화.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작 홍보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 구조 변경 기준 마련. 차량 11년으로 제한해 노후화 방지하며, 정기 점검과 허가 절차를 강화 · 법령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필수로 무허가 운행 시 처벌 강화.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24 플랫폼 통한 온라인 절차 간소화 - 차고지증명제와 서민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 증명제로 서민과 청년층 경제적 부담 증대. 주차비용이 자동차세를 초과해 주민 반발 지속. 서민 지원책이 부족 · 정책 효과 미흡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 요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개선안 마련. 공영주차장 확대 요구 증가 - 친환경 차량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정책 지속 추진.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충전소 인프라 확대 추진 ·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차량 보급 활성화 추진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편입용 미지급용지 예산 감소로 주민 반발. 예산 삭감은 장기 보상 계획과 주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우려 ·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 수립 필요성. 연차별 예산 확대와 투명한 절차 통해 불만 해소 필요 - 도로 안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도로 결빙 대비 제설 작업 확대. 시민 자율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안전 강화 ·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확대. 시공 품질 관리와 함께 폭설 및 결빙 대비 안전 체계 강화 필요 - 도로 교통 체계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 추진. 실시간 교통량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효율성 강화와 사고 예방 도모 · IoT 기술 활용과 통합 플랫폼 도입으로 교통사고 방지. 교통 정책 개선 효과도 기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기업 통폐합 검토. 수익성 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행 · 민간위탁 대안 제시.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제 성장 조화 필요 - 도시 재생 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사업 계획 병행 필요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재배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 목적 - 공공 안전 구조 점검 · 겨울철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가설 시설물 점검과 품질 관리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진행 ·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예방 조치 강화. 위험 요인 사전 발견 및 대응 방안 마련
	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경계 분쟁과 대응 · 제주-완도 간 바다 경계 분쟁 심화. 사수도 관할권 법적 대립 지속으로 주민과 지역 어민의 피해 우려 · 해상 경계 관련 법률적 대응 강화. 소송 준비를 위해 기록물 확보와 주민 의견 반영 중요성 대두 - 청정 바다와 관광 활성화 · 최남단 방어축제 개최. 지역 특산물과 관광 융합 전략 강조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 동시 추진 · 청정 바다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 추진. 축제 참가자 체험 프로그램 다채롭게 제공 - 해양 자원 보존과 관리 ·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규제 강화. 어업 규제와 보존 구역 확대 및 환경 보호 우선 정책 도입 · 지역 주민 중심의 바다 자원 관리 정책 필요. 생태계 보호와 자원 지속 가능성 확보 목적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 인구 대비 불균형과 수혜자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맞춤형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실질적 경제 활성화 도모 - 청년 문화 복지 개선 · 청년문화복지포인트 불합리성 개선 요구. 운영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시스템 마련 필요성 증대 · 지역 청년 복지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다각화. 청년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청년 정책 참여 확대 ·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정책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역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 강화 · 청년 정치 참여 장려. 사회적 약자 대변과 리더십 강화를 통해 미래 정치 리더 양성 목적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연구학습 여행 산업 건전한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문화관광부는 수학여행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9개 조항의 통지를 발표. 조치에서는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련 중점 정책 제시 - 여행사에 수학여행 자원 공급 확대와 수학여행 고품질 관광지 조성, 브랜드가치 최대화, 기업 육성 및 여행 상품 개발 등 지원 예정 - 수학여행 계약 표준 양식을 제정하고 여행사와 소비자의 규범화된 계약 체결 유도 - 해외 수학여행에서의 위험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의 필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기업 안정적 수주 및 시장 개척 위한 3대 분야 9개 정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무역 고품질 발전을 위한 “외자기업 안정적 수주와 시장 개척에 관한 정책 조치”를 발표. 금융 지원 강화, 신동력 육성, 기업 서비스 보장 등 3개 분야 9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책 추진 예정 - 수출신용보험 규모와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 융자 지원 강화, 외환 리스크 관리 지원 등 금융 지원 정책의 시행.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해외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특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새로운 무역 동력 육성의 추진 - 기업 서비스 보장을 위해 상무 인력의 국경 간 이동 편의 제공, 항운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지원, 기업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강화. 대외무역 기업의 안정적 수주와 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회복의 견인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일보망, 외국인 방문객 위한 여행 가이드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일보망은 텐센트 문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China Travel Guide' 출시. 중국의 무비자 정책 확대와 외국인 입국 절차 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소화에 따라 증가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상세하고 실용적인 여행 안내서의 제공

- 입국 절차, 전자결제 방식, 호텔 예약 방법, 교통수단 이용, 주요 관광지 경로 등 실용적인 정보를 포함. 첫 페이지에서 목차 형식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관심 있는 내용을 빠르게 조회 가능
- 정책 변경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텐센트 클라우드 문서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한 동적 콘텐츠 보완. 전자 여행 안내서로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와 여행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포럼, 베이징서 개최

- 2024년 국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포럼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수소에너지 생산, 저장운송, 산업응용 및 무역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기술혁신과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
- 청화대 산업개발연구원 및 국제수소에너지센터의 수소에너지 분야 탐구와 실천에 대한 성과 발표. 수소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녹색수소 비용, 적용 규모, 글로벌화 부족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한 현실
- 베이징가스그룹과 국제수소에너지센터의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및 페트로베트남과의 협력각서 교환.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험 플랫폼의 정식 발표와 발전, 시멘트, 가마, 난방 등 석탄 연소 분야의 녹색연료 개발 지원 계획

○ 베이징, 36개 분야 119개 개혁 조치로 민생 개선 추진

-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개혁과제 목록'을 발표. 36개 분야에서 119개 구체적 개혁 조치를 제시하며 향후 5년간의 베이징 인사사회보장 체계 개혁의 청사진 제시
-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 메커니즘 구축, 대학 졸업생 등 핵심 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층의 취업지원 체계 완비, 공정기회 제도 메커니즘 개선, 새로운 고용형태 발전 지원 등 11개 개혁과제의 도출. 양로보험, 사회 보장기금 등 5개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

- 인재양성, 기술인력 발전, 직업자격 평가 등 12개 분야에서의 개혁과제 제시. 노동관계 협상 조정 메커니즘 완비, 인구발전 지원을 위한 노동보장 메커니즘 구축 등 7개 분야에서의 개혁 조치 수립과 집행

○ 중국 첫 기초 에너지법 내년부터 시행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최초의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에너지 산업의 법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보장과 녹색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에너지법은 총칙, 에너지 계획, 개발이용, 시장체계, 비축과 공급, 과학기술혁신,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9장 80조로 구성.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중국의 에너지 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전략을 법률로 명확화
- 비화석에너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 대체 추진,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확대 등의 내용 포함. 재생에너지 녹색전력 인증 등 제도를 통한 녹색에너지 소비 촉진 메커니즘 구축

○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 2024, 국제 협력 강화 강조

- 2024년 세계인터넷대회 청서 발표회에서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 2024'와 '세계 인터넷 발전보고서 2024' 등 공개. 중국의 정보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전략적, 기초적, 선도적 역할의 점진적 부각
- 디지털 경제 정책의 체계화 구축 가속, 데이터 규모의 우위 형성, '실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생산력의 강화. 디지털 정부 서비스 효능의 현저한 증강과 디지털 사회 거버넌스 수준의 안정적 향상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네트워크 공간 주류(主流) 사상여론의 지속적 강화, 네트워크 문명 건설의 질적 향상, 네트워크 종합 거버넌스 체계의 기본 구축.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의 새로운 단계 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세안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 건설로 디지털 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중국-아세안 정보향 포럼이 저장성 우전에서 개최되어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 건설과 디지털 미래 공유를 주제로 논의. 중국-아세안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성과가 양측 경제무역 교류와 산업 발전에 더 큰 도움을 제공 - 국경간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 국제통신 업무 출입국, 국경간 무역금융 상호연계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시설 프로젝트 운영. 기술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중국-아세안 정보향 건설의 새로운 동력 주입 - 북두(北斗)위성+AI 기술을 활용한 운송 안전 관리, 디지털 정부, 디지털 민생, 디지털 산업 등 분야에서 약 20개 프로젝트 협력 진행.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생활 편의성 증대와 문화교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 민영경제 발전 지원 위한 28개 조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이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영경제 발전 요소 보장 강화를 위한 28개 구체 조치 발표. 민영기업 발전을 위한 더욱 유연하고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수립 - 민간자본의 중대 프로젝트 참여 지원, 기초 인프라 경쟁 분야의 공평한 개방,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기술 공략과 성과 전환 등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제시. 디지털 전환과 기술 개선을 통한 민영기업의 질적 향상 촉진 - 재정세무 정책 보장 강화, 융자 지원 확대, 정부투자기금의 유도 역할 강화 등을 통한 민영경제 발전 요소의 보장. 공정 경쟁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과 민영경제 발전 장벽 제거의 지속적 추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 안정성장 위한 9개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가 대외무역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조치를 발표. 금융 지원 강화, 대외무역 신동력 육성, 대외무역 기업 서비스 보장 등 3개 방면 9개 조치를 통한 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 - 중국의 10개월간 대외무역 총액이 36조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공업 분야의 대외무역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공업 성장의 안정화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국제 산업사슬 공급사슬 참여 유도,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에너지자원 제품 수입 촉진 등을 통한 대외무역 발전의 지속적 추진. 녹색저탄소 산업과 녹색무역 발전 강화 <hr/> <p>○ 중국 정부, 식량절약과 식품낭비 방지 행동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부가 식량절약과 식품낭비 방지 행동방안을 발표. 절약 전략의 심도있는 실시와 식량안전보장법, 반식품낭비법의 이행을 통한 식량과 식품 절약의 장기 메커니즘 구축 - 2027년 말까지 식량과 식품 절약의 장기 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고, 식량 손실과 식품 낭비 통계조사 제도, 표준 규범,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식량 생산, 저장, 운송, 가공 손실을 국제 평균 수준 이하로 통제 - 식량 기계수확 손실 감소, 식량 저장 손실 감소, 식량 운송 손실 감소, 식량 가공 손실 감소 등 구체적 행동의 제시.全民 식량절약 의식 제고와 식당업계의 반낭비 행동 강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절약 문화 형성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베트남, 벤처기업 분야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베트남 내 자국 벤처기업 규모가 13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 약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베트남 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벤처산업의 성장세 가속화 추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무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대외무역개발공사와 베트남 무역진흥원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양국 무역 관계의 발전 도모
- 페트로나스와 페트로베트남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교환. 에너지 협력 강화와 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을 위한 포괄적 노력 확대

○ 말레이시아,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사상 최대 기록

- 말레이시아가 2023년 약 74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24년 중반까지 추가로 약 36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통한 아세안 핵심 경제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10개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 무역 효율화, 관료적 장애물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파트너십 추진
- 전문가들은 현지 기업들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우선순위화를 권고

○ 말레이시아, 중국의 두 번째 원유 공급국 지위 회복

- 말레이시아의 10월 대중국 원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며 중국의 두 번째 원유 공급국 지위를 회복. 일일 약 15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통한 에너지 무역 관계의 강화
- 중국의 전반적 원유 수입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 이란산 석유 할인을 변화에 따른 11~12월 수입 감소 가능성의 존재
- 러시아는 일일 230만 배럴의 원유 수출로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는 추세의 지속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 필리핀, 루손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단일 부지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인 테라 솔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주도. SP 신에너지공사가 약 2,000억 페소를 투자하여 3,500MW 규모의 청정에너지 생산 목표 설정 - 테라 솔라 프로젝트를 통한 연간 430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향후 10년간 약 230억 페소의 경제적 이익 창출 전망. 필리핀의 청정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메탈코 파워젠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과 루손 지역 그리드 안정성 제고.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의 수천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
	<p>○ 필리핀, 2024년 투자 승인 규모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경제구역청이 2024년 1월~11월 13일간 약 1,860억 9천만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하여 2023년 전체 기록을 상회. 약 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의 촉진 전망 - 총 222개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승인, 수출 활동, IT 서비스, 국내 시장 관련 프로젝트 등의 포함. 전기차 제조 부문과 타락 지역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유치 - PEZA는 외국인직접투자,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연간 약 2,000억 페소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
인도네시아	<p>○ 인도네시아, 2040년까지 에너지 믹스 내 석탄 비중 33% 감축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에너지 믹스의 33%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42%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 - 75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7만km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 수립.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필요성 제기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설치된 전력 용량은 약 90GW로 석탄이 55%, 신재생에너지가 15% 미만을 차지. 향후 15년 이내 모든 석탄 및 화석 연료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 <p>○ 인도네시아, 신규 조세사면제도 도입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가 약 10년 만에 세 번째 조세사면제도 도입을 검토. 미신고 자산 공개 시 일반 세율 대비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의 수립 -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조세사면제도 시행을 통해 약 3,400억 달러 이상의 미신고 자산 적발. GDP 대비 10%인 현 세율을 18%로 높이는 목표의 설정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미 기존 제도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제도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견해 제시. 2025년 1월 1일부턴 부가가치세 12% 인상 계획에 대한 우려의 확대
싱가포르	<p>○ 싱가포르 부총리의 한국 방문, 기술 협력 강화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스위 키트 부총리가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과 한국의 연구개발 및 혁신 사례를 논의. 난양공업대학과 한국 기관들 간의 활발한 혁신 분야 협력 강조 - 지역 경제 통합 심화, 과학 협력, 기술 협력, 혁신 활용 방안 등을 논의.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과 인공지능 협력 및 연구자-학생 간 교류 프로젝트의 확대 - 이주호 한국 부총리와의 회담을 통한 양국 간 강력한 파트너십 재확인.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의 논의 <p>○ 동남아시아 에너지 관계자들의 메탄 감축 공동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로나스, 페르타미나, 아세안 에너지 센터 등 동남아시아 주요 에너지 관계자들이 메탄 배출량 감축을 약속.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와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 강조
ASEAN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석유 및 가스 부문 메탄 배출 기준선 수립과 2030년까지 정량화 가능한 집단 메탄 배출량 감축 목표의 설정.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체계적 감축 전략의 수립 - 에너지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와 혁신적 솔루션 개발 계획. 에너지 측정, 모니터링, 보고, 검증, 완화 조치 강화를 통한 동남아시아 메탄 감축 프로젝트의 추진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통탄 친나왓 총리 정부가 경제 회복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대,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의 준비. 현금 지원 이니셔티브와 토지 장기 임대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의 검토 - 2024년 2.7%, 2025년 3%의 경제 성장 전망과 2024년 1월-10월간 약 2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실적. 식품 가공 허브로서의 강점을 활용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등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 프어타이당의 부패 혐의 제기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의 심화로 인한 투자 저해 우려. 정치적 불안정이 국내외 기업들의 대태국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시, 숙박세 인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시가 숙박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 2025년도 내 개정을 목표로 현행 세수(52억엔) 대비 2배 이상의 인상폭을 검토 교통 인프라 정비 등에 충당할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의 추진 - 현행 숙박세는 숙박요금 2만엔 미만 200엔, 2만-5만엔 미만 500엔, 5만엔 이상 1000엔의 구조 마쓰이 고지 시장은 공약으로 내건 숙박세 인상을 위해 전문가 검토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인상 지지 답신의 수령 - 숙박업계 3단체는 당일치기 관광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시민과 관광 발전에 기여한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시민, 관광업계, 숙박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과제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한·일 상공회의소, 오사카서 지도자회의 개최**

- 일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사카에서 '한일 상공회의소 지도자회의' 개최. 양국 간 경제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의 채택
- 오사카상의 도리이 신고 회장은 한일관계가 '경쟁'에서 '협조'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지적. 양국이 협조하여 대응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실현', '공급망 강화'를 제시
-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스타트업 등 상호보완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발굴과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박람회 개최 등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의 확대 심화를 위한 노력 추진

○ **쓰쿠바시, 공유자전거 2배 확대로 지역사회 유지**

- 쓰쿠바시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공유자전거 '쓰쿠차리'의 대수를 58대에서 100대로 증강. 대여소도 23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연말까지 5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 추진
- 2021년 10월 도입된 쓰쿠차리는 15분당 77엔으로 이용 가능하며 상한액은 8시간 1,500엔. 첫해 5678건이던 이용이 22년도 22,969건, 23년도 24,2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가라시 립세이 시장은 시내 이동에서 자전거의 우위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버스와 택시 등 공공교통이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감편되는 가운데 단거리 이동의 선택지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유지 도모

○ **반노쥬, 수소 콤비나트로 전환 추진**

- 세토대교 아래의 반노쥬 콤비나트가 신거제와 함께 시코쿠를 대표하는 콤비나트로서의 전환 추진. 코스모석유 정유소 폐쇄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의 부활을 위한 수소 연료 공급기지화 구상 진행
- 콤비나트 관련 기업과 자치체가 2월 수소 공급거점 계획 검토를 위한 협의회 설립. 가와사키중공업이 대표기업으로 코스모석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시코쿠전력 등 대기업 참여와 사카이데시의 사무국 역할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2030년까지 외부 수소 도입을 통한 기업의 연료 전환, 2050년에는 연간 43만 톤 규모의 수소 제조와 외부 공급을 목표로 설정.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입지를 활용한 수소 공급기지로의 전환 추진

○ 이와테현 기업국, 재생에너지 전기 전량 현내 소비로 전환

- 이와테현 기업국이 발전하여 고정가격매입제도로 판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기가 모두 현내에서 소비되는 체제로 전환. 다치마스 다쿠야 지사가 현내 2개 기업과 재생에너지 전기 특정 도매공급 협정 체결 발표
- TAGA와 구지지역에너지가 전기 공급을 받아 2024년 12월~27년 3월 기간 동안 양사 합계 연간 약 8만 메가와트시의 공급량 확보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 구축
- 다치마스 지사는 세계와 국내에서 생산과 경제활동이 탈탄소화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강조하며 이와테현이 산업·경제활동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

○ 도쿄 23구 70%, 방일객 대상 피난 대책 미비

- 도쿄 23구의 70%가 재해대응 기본방침인 '지역방재계획'에서 방일 외국인 대상 피난 대책을 미수립. 도쿄도내 외국인 여행객이 과거 최대 페이스로 수도직하지진 등 발생 시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 도쿄도가 2022년 책정한 수도직하지진 피해상정에 따르면 귀가곤란자가 최대 452만 명으로 예상. 긴급차량 통행 우선과 군중사고 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이동 자제의 기본원칙 수립
- 재해 시 정보발신에서의 과제 존재. 모든 구가 웹사이트 다언어 대응을 하고 있으나, 관광안내소는 6개 구, 콜센터는 2개 구, 홍보차량은 0개 구의 현실. 기초자치단체의 세밀한 정보제공 역할의 중요성 강조

일본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로손, 산간지역 드론 배송 실험 개시

- KDDI가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간부 주택 배송 실증실험 시작. 5kg 정도의 화물을 약 10km 떨어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배송 정밀도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검증 추진
- 2025년 1월부터 3년간의 실험 계획으로 KDDI스마트 트론이 기체 운항과 시스템 개발을 담당. 로손 편의점 점포를 배송 중계거점으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CO2 배출량 60% 감축을 목표로 환경성 사업으로도 채택. 담당자 1인당 복수 드론 조작 체제 구축과 원격지에서의 조작 실용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의 추진

○ 오사카대학, 강하고 분해하기 쉬운 폴리머 개발

- 오사카대학 다카시마 요시노리 교수 연구팀이 기존 대비 8배의 강도와 20배의 분해속도를 달성한 생분해성 폴리머 소재 개발. 소재를 구성하는 폴리머 사슬에 특수 분자를 조합하여 두 성능의 동시 향상 실현
- 리파제 분해 효소가 분해하는 생분해성 폴리머 재료에 링형 특수 분자를 조합하여 가동식 결합 구조 구현. 물리적 힘에 대한 강도가 8배로 향상되고 효소에 의한 분해속도는 20배로 향상되는 성과 달성
- 개발된 폴리머 재료는 효소로 분해한 후 다른 섬유에 조합 가능. 폐기된 의류 섬유 소재 등에 조합하여 더 높은 강도의 의류로 재생하는 등의 용도를 상정하고 5년 이내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

○ 치바현, 숙박세 도입 공식 발표

- 구마가이 토시히토 치바현 지사가 호텔 등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세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 제도 설계 등에 대해 시정 차원과 숙박사업자들의 이해를 대체로 얻은 것으로 평가
- 향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제도의 세부사항 조정 예정. 수학여행생에 대한 과세 면제 요청 등 숙박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

- 우라야스시와 미나미보소시 등이 독자적인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은 이러한 자치체들과의 조정도 추진할 계획

○ **가나가와 미우라의ライド셰어, 12월부터 본격 실시**

-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의 '가나가와관ライド셰어'가 4월부터의 실증실험을 거쳐 12월 17일부터 본격 실시. 시가 운영 주체가 되어 위탁받은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승객을 유상 송영하는 체계
- 운행시간은 야간부터 새벽으로 한정하여 택시 부족을 보완. 4월 17일~11월 10일까지 208일간 458대가 운행하여 767회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사고나 트러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배차 성공률이 약 80%로ライド셰어 도입 전보다 약 20포인트 상승. 연간 550만엔의 수입을 예상하나 670만엔의 비용이 발생하여 120만엔의 차액은 미우라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 **아이치현, 나는 자동차 유람비행으로 나고야성 등 3곳 후보지 선정**

- 아이치현이 '나는 자동차' 유람비행 후보지로 나고야시의 나고야성과 나고야항 등 3곳을 선정. 아이치현 내 주민과 방일외국인의 집객력과 체류시간이 긴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 아이·지구박 기념공원도 후보지로 선정되어 안전성과 조망 등의 관점에서 추가 검토 예정. 아이치현은 2026년도 경 나는 자동차를 이용한 유람비행의 초기 모델 실현을 목표로 설정
- 차세대 이동수단을 논의하는 프로젝트팀 회합에서 발표되어 향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 논의 예정

○ **오키나와현 숙박세, 숙박요금 2% 정률제로 결정**

- 오키나와현이 2026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숙박세를 1인 1박당 2%의 정률제로 징수하기로 결정. 현과 시정촌은 관광진흥책을 위해 80억엔 가까운 재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 1인 1박당 부담 상한액은 2000엔, 면세는 수학여행생과 인솔자만 해당. 개별적으로 세 도입을 예정했던 온나손 등 5개 시정촌이 6할, 기타 시정촌은 현과 절반씩 배분하는 구조로 결정
- 정률제는 도도부현 레벨에서는 처음으로, 3년 후를 목표로 세율과 과세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 실시 예정. 관광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표명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